

진지한 북토크... 유쾌한 책수다

‘귀로 듣는 책 이야기.’ 도서관 장비가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첫회를 들었다. 진행자로 나선 이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책 ‘육망해도 괜찮아’ 등을 쓴 경북대 김두식 교수. 시작부터 만만찮은 입담을 자랑한다. 파트너는 ‘파시 입문기’의 소설가 황정은 씨.

메인 프로그램은 ‘북토크’.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초대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코너다. ‘세계문학 전성시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북토크의 초대 손님은 ‘집대와 책’ 등 책에 관한 책을 많이 써온 정혜윤 CBS PD와 소설가 최민석씨였다.

‘책’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팟캐스트(Podcast)’는 애플의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ing)을 합성한 말. 다양한 콘텐츠를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나는 짬수다’를 통해 대중과 친숙해졌다.

장비의 ‘라디오 책다방’은 ‘북토크’ 이외에도 시민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직접 녹음한 시를 들려주는 ‘밖으로 나간 시’, 첫 책을 낸 이의 책을 골라 한 대목을 읽어주는 ‘발견! 이 작가’ 등의 코너로 구성돼 있다.

또 살아가면서 겪은 추억, 기억의 한 순간을 같이 나누는 ‘결정적 순간’도 눈길을 끈다. 이날 첫회 방송에서는 소설가 정이현이 고 박완서 선생과의 마지막 추억을 기억했다.

‘라디오 책다방’은 장비 홈페이지(www.changbi.com)에서도 들을 수 있다. ‘밤은 책이다’를 펴내기도 했던 독서광이자 영화 평론가 이동진이 진행하는 ‘이동진의 빨간 책방’은 매회 다운로드 횟수만 10만회가 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코너로 운영되지만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소설가 김중혁과 진행하는 ‘책, 입자를 만나다’다.

출판사 위즈덤하우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고 있으며 매월 1일과 15일 두차례 업데이트된다. 지금까지 ‘세시, 바람이 부나요’, ‘잠을 수



장비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을 진행중인 김두식·정혜윤·황정은·최민석(왼쪽부터)씨.

‘책’ 주제로 한 팟캐스트 인기

없는 존재의 가벼움, 만화 ‘미생’ 등 19회가 진행됐으며 마크 톨랜스의 ‘철학자와 늑대’가 가장 최근 에피소드다.

소설가 김영하가 진행하는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도 인기가 높다. 지난 2010년 첫선을 보인 이래 매달 한 차례씩 업데이트 돼 모두 47회차를 기록하고 있다.

김씨가 직접 책을 고르고 책이나 작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특정 부분을 읽어 준다.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를 시작으로 ‘설복 홈스 결산’, 무라카미 류 ‘달콤한 악마’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박완서 ‘그리움을 위하여’, 정이현 ‘오늘의 거짓말’, 주제 사마라구 ‘논변자들의 도시’ 등이 그의 목소리를 타고



장비 ‘라디오 책다방’
김영하 ‘책 읽는 시간’
이형열 ‘어쩌다 책 읽기’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취자들에게 전해졌다.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책은 은희경의 소설 ‘태연한 인생’이다.

지금까지 544회 방송을 진행한 ‘책 읽는 라디오’도 인기 프로그램이다. ‘귀로 읽는 소설’ ‘에로메크 소설방’, ‘책 전하는 포자마차’ 등 매주 월~금요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밖에 반디US 이형열 대표와 한운경씨가 진행하는 ‘어쩌다 책 읽기’도 눈길을 끈다.

장비 관계자는 “4개월 동안 준비를 한 후 파일럿 방송을 거쳐 분방송을 시작했는데 독자들도 인기 작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스마트폰과 팟캐스트에 익숙한 젊은 독자들이 책과 더욱 친해질지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라디오에 귀 기울인다, 책 속 낭만이 찾아온다

EBS ‘책 읽어주는 라디오’ KBS3 라디오 ‘연속낭독’ 등

책과 라디오에는 낭만이 있다. 최근에는 라디오에서도 책의 낭만을 찾을 수 있다. 라디오에 귀 기울이면 책을 읽지 않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우나 아나운서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친절하게 책을 읽어준다.

가장 대표적인 라디오는 채널은 지난해 ‘책 읽어주는 라디오’라는 슬로건으로 파격적인 개편

을 단행한 EBS(광주 FM 105.3 MHz)다. EBS는 매일 11시간 가량을 책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편성, 읽어주는 라디오로 변신했다.

‘어른을 위한 동화’ ‘시 콘서트’ ‘수필 콘서트’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라디오 문학관’ ‘화제의 베스트셀러’ ‘영미 문학관’ 등의 코너로 장르를 불문하고 다

양한 문학을 소개하고 있다. ‘라디오 연속소설’ 코너는 천명관, 은희경, 고종석, 황석영 등 유명 작가의 신작을 음악과 함께 연재 낭독한다. 지금은 심운경의 ‘사랑이 채우다’가 방송되고 있다.

‘어른을 위한 동화’ 코너에서는 매일 한 시간씩 어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림책과 동화를 DJ 강성연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주고 ‘영

미 문학관’은 영어권 국가의 문학을 원어인 성우가 영어로 낭독하고 진행자가 한국어로 해설해 준다.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은 오프라인 리더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을 직접 소개하고 낭독하는 코너다.

KBS3 라디오(AM 1224KHz) ‘연속낭독’(매일 오전 6시, 오후 10시)도 아침과 저녁 시간에 20분씩 시청자들이 읽고 싶어하는 책을 낭독해 주고 있다.

‘사랑의 책방’은 주목할 만한 책이나 화제의 작가를 초대해 시청자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영산강유역 대형옹관 복원 보고서 발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의 독특한 특징인 대형옹관(大形甕棺)의 제작기술 복원 연구 성과를 총정리한 ‘대형옹관 제작 고대기술 복원 프로젝트 종합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기존 대형옹관에 대한 조사 연구 성과를 담았다.

3D 스캐닝과 CT 촬영 등 대형옹관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성분분석을 바탕으로 옹관을 굽기 위한 가마의 형태와 구조적 특징, 옹관을 빚는 방법으로 실험고고학적 측면에서 밝혀낸 연구 성과들을 묶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가 고고학과 자연과학의 융·복합연구를 통한 영산



강유역 대형옹관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영산강유역 고대 사회를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소는 올 한해 ‘대형옹관 유통과 활용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61-339-112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대형옹관 =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대형옹관은 시신(屍身)을 묻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토기 관(棺)으로 어른을 위하여 안치할 수 있는 크기다. 영산강유역 고분 사회를 특징짓는 핵심적인 문화유소의 하나다.

상업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그라운드 제로’전 12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은 올해 두 번째 전시로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창립초대전을 개최한다. 오는 12일까지.

그라운드 제로는 손만석(디자인, 영상), 성유진(순수미술, 한국화), 문상용(일러스트, 이민형(만화), 정수민(스토리텔링)씨 등 조대 출신의 20~30대 작가 5명이 모여 만든 창작공동체다. 모두 미술을 전공했지만 서로 다른 장르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업미술관 순수미술의 경계를 허물어 보자는 취지로 결성했다. 디자인, 영상, 미술, 만화뿐만 아니라 공공미술 등 문화 전반을 활동 영역으로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디어, 설치, 출판물, 일러스트 등 모두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2-222-805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정수민 작 ‘공모전!’

‘국악으로 풍류찾기’ 참가기업 모집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전수관 신축·개관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이 교육·연수 전용 공간인 ‘국악전수관’을 신축·개관하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국악으로 풍류찾기’ 프로그램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국악으로 풍류찾기’는 연수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악원의 연수 시설과 전문 강사, 진도군의 풍광과 자산을 결합시킨 기업체 대상 신설 프로그램이다.

임직원 20명 이상이면 신청(연중 수시)할 수 있으며 국악강습, 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업 관련 행사를 구성하면 된다. 기업은 연수 기간 중 숙박비만 부

담하고 국악원이 공연 및 강습을 진행하며 강의실·세미나실 등 시설 무료 제공, 진도 지역 문화 유적 탐방 기회 등을 준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국악원은 3층 규모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악전수관을 활용 기존 국악강좌를 비롯,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악원 관계자는 “국악으로 풍류찾기는 전통예술도 접하면서 기업체 워크숍이나 사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남도에서 특별한 문화체험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1-540-4042. /김미은기자 mekim@

‘전통문화관 발전방안’

내일 심포지엄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과 함께 무등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전통문화관의 역할 확대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6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전통문화관 발전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선중 광주시 문화재 전문위원의 사회로 전남대 나경수 교수가 ‘전통문화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강현구(광주시 문화재위원), 윤진철(광주시립국극단 예술감독), 정승규(무등현대미술관장), 임이택(목포대학교 명예교수)씨 등이 부문별로 토론을 벌인다. 문의 062-232-1501~2. /이보람기자 boram@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62)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최적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별 서비스 전용 예약 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1석
[와인 or 생맥주 1잔] 1석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음력생일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음력생일상): 29,000원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 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